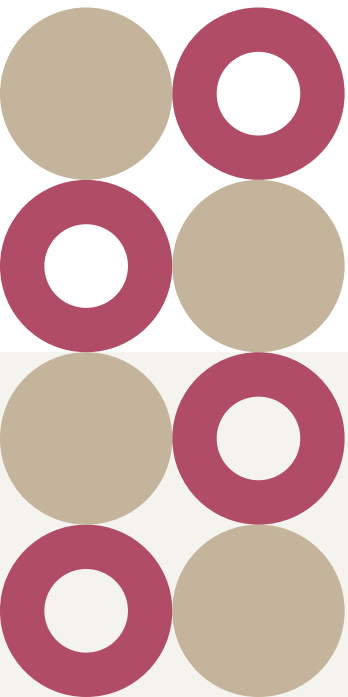


PARTNERSHIP ON

Demo Day 2018

투자 보고서



인사말



淡淡한 마음을 가집시다
淡淡한 마음은
당신을 굳세고 바르고 총명하게 만들 것입니다

아산 정주영

아산나눔재단의 '파트너십 온' 사업은

지난 2015년 '세상을 바꾸는 淡淡한 도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비영리기관을 '혁신리더'로 선정해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 같은 비영리기관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시도되었습니다. 재단은 벤처기부(Venture Philanthropy)방식을 도입해 혁신리더에 유연한 재정 지원을 펼치는 동시에 기관들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조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각 분야 전문가를 투입해 집중적으로 관여하는 등 비재정적 지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십 온 사업의 2·3기 혁신리더로 선정된 4개 기관 모두는 지난 3년간 재단과 긴밀한 협력하에 미래세대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기관의 정체성과 비전을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가정신·모금홍보·마케팅·브랜딩·법률·성과평가·전략·조직·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자문은 조직역량 강화와 재정 안정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디지털소외, 따돌림·성매매 피해, 미혼부모, 수감자 자녀, 장애, 저소득, 탈북·다문화, 학교 밖·비행, 저소득 등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아이들의 교육과 생활 여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처음 서로를 마주했을 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3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사각지대 청소년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아산나눔재단은 앞으로도 이들과 함께 마주 보며 걸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이경숙
아산나눔재단 이사장



'파트너십 온'은 미래세대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 접근방식과 아이디어, 성장 잠재력을 지닌 비영리기관을 지원하여 발전을 이끌어내는 비영리기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입니다.

'파트너십 온'은 벤처기부(Venture Philanthropy) 방식을 통해 재정적·비재정적으로 지원합니다. 비영리기관(혁신리더)과 아산나눔재단, 전문가 그룹(자문위원, 전문위원)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충분하고 유연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동시에 다양한 자문, 컨설팅, 교육을 지원해 성공적 사업수행과 조직역량 강화를 도모합니다.

기관 주요 성과 지난 4년간(1-3기)



4년간 파트너십 온의 투자

지원 기관 수



총 **19**개 기관

1기 7개, 2기 3개, 3기 4개
4기 6개(BUILD)

장애	4	탈북·다문화	2
저소득·취약전반 청소년	3	수감자 자녀	1
학교밖·비행 청소년	2	따돌림 피해	1
미혼부모	2	성매매 피해	1
디지털 소외	2	지역재생	1

재정적 지원



총 **84.8**억 원

- ✓ 1-3기 기관별 연간 최대 2억원 (최대 3년 지원)
- ✓ 4기 BUILD 기관별 3천만원
- ✓ 사업 기반 모든 예산 항목 지원

비재정적 지원



총 **1,052**시간

- 자문** 자문위원 통한 사업관련 전반 자문, 법률 및 회계세무
- 컨설팅** 조직, 홍보, 모금 마케팅, 브랜딩 등
- 교육** 세무회계, 법률, 조직운영, 리더십, 기업가정신, 성과평가, 전략, 홍보·모금 및 피칭 등



전문가 **48**기관 참여

탄탄한 조직을 만드는 데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고민이 필요했지만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파트너십 온은 조직을
 돌아보고 구성원들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한 덕분에 내실 있는 조직, 투명한 조직, 구성원들이
 행복해하는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함의영 피치마켓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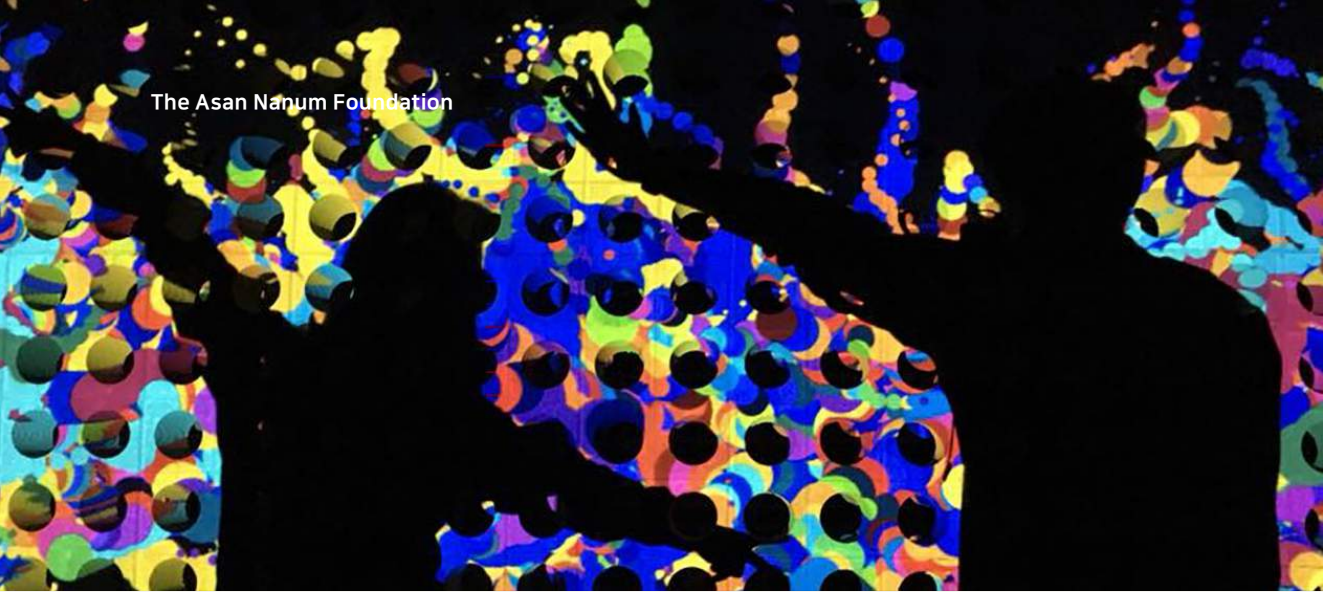
모금홍보 컨설팅을 받으며 다양한 채널로 조직을 알리고,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공감을 얻기 어렵고 편견이 심한
 이슈를 다루고 있어 이전엔 적극적 홍보를 하지 못했지만, 컨설팅을 통해
 다양한 방식의 홍보를 시도하게 되었고, 지지와 공감을 재정이라는 현실적
 도움으로 이끄는 방법도 찾게 되었어요.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투자보고서

투자보고서에서는 파트너십 온에서 2016년부터 투자·지원한
 2·3기 혁신리더 4개 기관의 '주요 성과'와 '성장 플랜', '투자 필요 부분'이 있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4개 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투자자, 협력자, 지지자분들의
 폭넓은 투자와 참여를 기대합니다.





꿈이룸학교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최초의 뉴미디어·예술 대안학교입니다. 뉴미디어(New Media)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소통 수단으로, 꿈이룸학교는 새로운 세대에 뉴미디어가 미치는 다양한 영향력에 주목하여 독자적인 교과과정을 개발했습니다.

'뉴미디어'와 '예술'을 접목한 프로젝트 기반의 융복합 교육과정으로, 진로에 대한 디지털 시대 청소년들의 흥미와 창조성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진정한 즐거움을 바탕으로 미래사회에 필요한 진로 역량을 함양하도록 돕습니다.

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설립연도	2015년
성과 창출 지역	서울시 및 수도권
기관형태	비인가 대안학교
직원수	직원: 13명 전문 강사: 35명
연간 예산	3.5억
담당자 소개	우소연 교장 정두수 기획국장 양광조 교육국장

주요 대상

17세 이상의 학교 밖 청소년을 모집·선발하여 뉴미디어·예술 창작도구를 활용한 2년 6학기 정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학생 외 학교 밖 청소년도 발굴하여 단기 학습 과정을 제공하며, 대안학교로서 갖는 독자적인 교육과정과 콘텐츠를 확산하고자 다양한 교류 사업을 실행합니다. 19년도부터는 뉴미디어 예술 교육이 필요한 기관 및 교사 대상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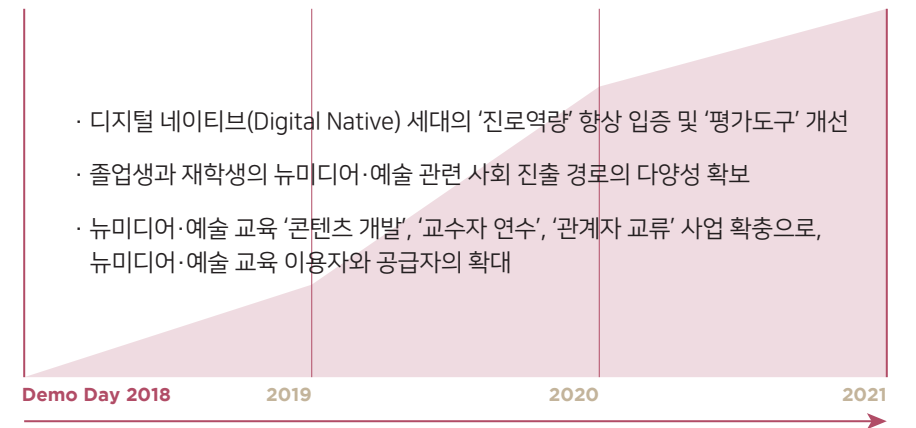
기대 효과

청소년이 다양한 뉴미디어 창작 도구를 활용하여 예술 활동을 하고, 다가오는 시대에 다른 목소리를 존중하며, 다양한 시선으로 세상을 구현하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주요 성과

- 뉴미디어·예술 교과 중심의 2년 6학기제 교육과정 개발 (음악, 미술, 공연, 사진, 영상, 애니메이션, 3D프린팅 등 최신 도구 활용 교육과정)
-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세대 진로 역량 평가도구 개발 및 적용 (평가 역량: 뉴미디어·예술 활용, 프로젝트 수행, 의사소통 및 협업, 진로탐색)
- 뉴미디어·예술 교육 '서밋(Summit) 개최', '교과운영 사례집 발간', '작품 공모전 개최'로 대외 협력을 위한 토대 구축

성장 플랜 (3년)



투자 필요 부분

- 더 많은 청소년과 더 나은 교육을 위한 비인가 대안학교 운영 예산 확보
- 학교 밖 청소년의 다면적 사회진출 확대를 위한 진로랩(Lab, 연구소) 구축
-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격차해소를 위한 뉴미디어·예술 교수자 연수 과정 개설



꿈이룸학교를 다니면서 너무 많은 것을 얻었어요. 졸업하기 전에 2년동안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책을 만들어, 소중한 경험을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어요.

꿈이룸학교 재학생(1기, 2017년 입학)





ANOTHER WAY OF SEEING

우리들의 눈은 미술교육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맹학교 미술수업을 지원하여 시각장애 청소년들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1996년부터 시작해 시각장애를 결핍이 아닌 문화로 보며 그들 안에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을 탐구했습니다.

미술 교육, 작품 전시, 점자촉각책 제작, 교육용 앱(APP) 개발 등 창의적인 교육·문화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각장애인들이 이미지로 세상과 소통하는 통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미술대학 진학, 작가 인큐베이팅 프로젝트를 통해 예술 활동가로서의 진로 확장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넓혀주고 있습니다.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설립연도	2007년
성과 창출 지역	전국
기관형태	사단법인
직원수	직원: 5명 예술강사: 10명
연간 예산	4.4억
담당자 소개	엄정순 디렉터 김정은 기획홍보이사

주요 대상

전국 맹학교 초등 3학년부터 고등 2학년까지의 재학생들을 중점 대상으로, 시각장애 학생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인 시각장애인 대상 정기적인 미술수업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영역의 대중을 대상으로 시각장애 인식개선 사업을 진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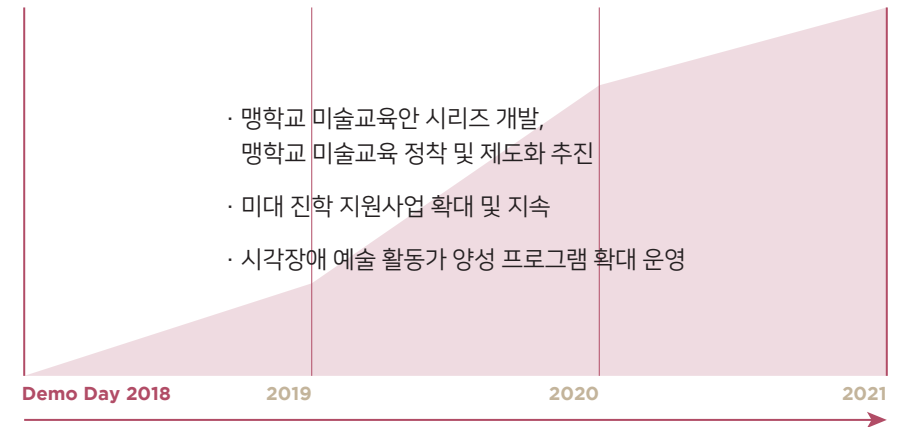
기대 효과

시각장애 미술교육의 '공급자'를 넘어 '플랫폼'으로서 여러 영역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참여를 촉진합니다.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주체와의 협업은 시각장애인을 '수혜자'가 아닌 '예술가'로 만듭니다.

주요 성과

- 전국 맹학교 12개 중 8개 학교에 전문 미술강사 90명 양성 및 파견, 맹학교 미술수업 매년 약 250회 진행
- 국내 최초 시각장애 미술교육 사례집·자료집·교재·수업안 등 총 5권 발행 및 배포
- 시각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대중강연 및 워크숍 총 24회 진행, 950명 참석 (대학, 언론, 맹학교, 시각장애 유관단체 대상)
- 시각장애인 미대진학 모집설명회 6회, 120명 참석(미술대학 및 맹학교 대상) 맹학교 시각장애 학생 1명 선발 및 교육으로 1곳 실기전형통과, 2곳 면접진행(18. 10. 기준)

성장 플랜 (3년)



투자 필요 부분

- 시각장애 미술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 맹학교 미술교육 정착 및 제도화를 위한 '예술·장애·교육'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관련 전문 활동가 확충
- 우리들의 눈 미술·예술 콘텐츠 체험 공간 확보 및 조성

“ 나를 표현하고,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는 미술이 참 좋아요.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있지만, 우리들의 눈과 함께 미술을 계속하면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박한별(대구대 현대미술학과 재학 중, 한빛맹학교 졸업) ”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대상 맞춤형 통합지원 서비스로 위기 청소년들이 존엄성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사이버도매상담원들이 범죄가 발생하는 사이버 공간(어플리케이션, 개인 방송, 인터넷 사이트 등)에 직접 찾아가 대상자를 발굴합니다. 이후 전문 상담원과의 상담 연계로 피해 아동·청소년의 현 상황, 필요와 욕구를 정확히 파악한 뒤 법률·의료·심리·주거·학업·일자리 등의 통합지원을 제공합니다. 나아가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를 운영하며 성착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설립연도	2012년
성과 창출 지역	서울시 및 수도권
기관형태	비영리민간단체
직원수	직원: 15명 봉사자 수: 83명
연간 예산	8.2억
담당자 소개	조진경 대표 권주리 사무국장

주요 대상

사회적·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옹호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인식·제도 개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의료·심리 전문가들의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과 연대활동을 진행합니다. 제도 개선을 위해 입법·사법·행정부·언론·학계와 협업하고 국제단체와 연대활동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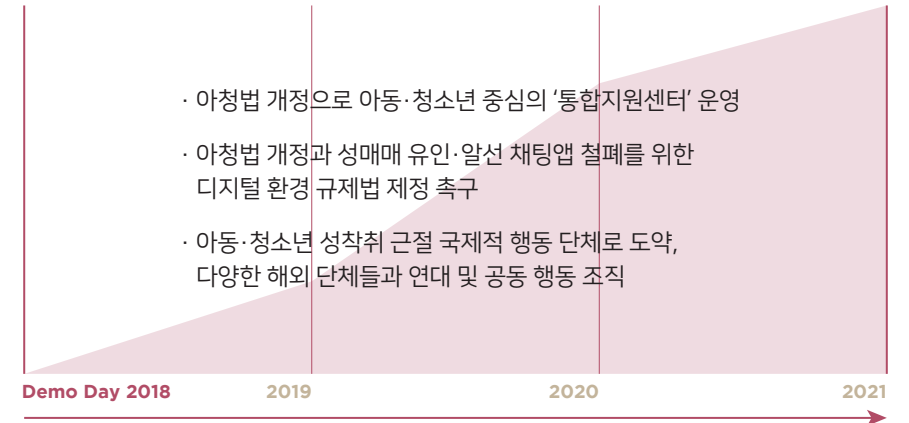
기대 효과

‘문제 아이들’, ‘방탕한 아이들’로 보는 낙인과 비난의 시각에서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우리 아이들’로 사회적 시선을 바꾸어 아동·청소년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주요 성과

-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수 253건에서 525건으로 208% 증가 (2016년 3·4분기 대비 2018년 1·2분기 현황)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 개정안 발의(2015, 16, 17) 및 국회여성가족위원회 통과(2018), 통과된 통합 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
- 국내최초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조사’ 보고서 발간(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2016)으로 인권위 상임위원회 아청법 개정 ‘권고문’ 국회의장에게 전달(2017)
- ‘해외 성매매 청소년 보호지원체계 현황 및 과제’ 보고서 발간(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2017)이후 ‘성착취 피해자 보호 법제화 방안 모색’ 국제세미나 개최(2018)
- 국내 최초 성착취 피해 청소년대상 성매매방지법 상의 상담소 등록(2017), 지속가능한 통합지원을 위한 토대 마련

성장 플랜 (3년)



투자 필요 부분

-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대상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공간 확보·조성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유인·알선·조장하는 사이버환경에 대한 기술적 방어체계 구축을 위해, 여성 IT 개발자와의 공동사업 운영
- 국제연대 활동을 위한 연구출판 및 홍보사업, 전문가 확보와 양성

“ 처음에는 많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이 센터 선생님들께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 걱정됐고, 창피했기 때문입니다. 막상 가보니 선생님들은 경청해주셨고, 변호사님들이 든든히 지원해 주시는 모습에 ‘참 따뜻한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올바른 생활로 이끌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같은 일을 겪었던 친구들에게 조금만 용기를 내어 방문해보고 치유 받길 권하고 있습니다.”

통합지원을 제공받은 청소년



피치마켓은 느린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글 콘텐츠를 제작하여 독서활동을 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독서환경을 조성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느린학습자인 발달장애, 경계선지적장애 청소년들이 어려운 글과 정보를 쉽게 이해하도록 맞춤형 콘텐츠와 함께 독서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위한 전문 교육 봉사자를 양성합니다. 이로써 느린학습자가 온전히 책 한 권을 읽으면서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대화의 폭을 넓혀 친구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설립연도	2015년
성과 창출 지역	서울시 및 수도권
기관형태	사단법인
직원수	직원: 10명 봉사자수: 50명
연간 예산	6.8억
담당자 소개	함의영 대표 김민재 팀장

주요 대상

인지능력, 독해력, 어휘력이 낮아 연령대와 맞지 않는 아동용 도서만 읽어야 했던 느린학습자 청소년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발달장애, 경계선지적장애, 다문화, 중도입국자녀 등 정보를 쉽게 이해하기 힘든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제공하여 정보 습득과 문화 향유의 기회를 부여하고, 대화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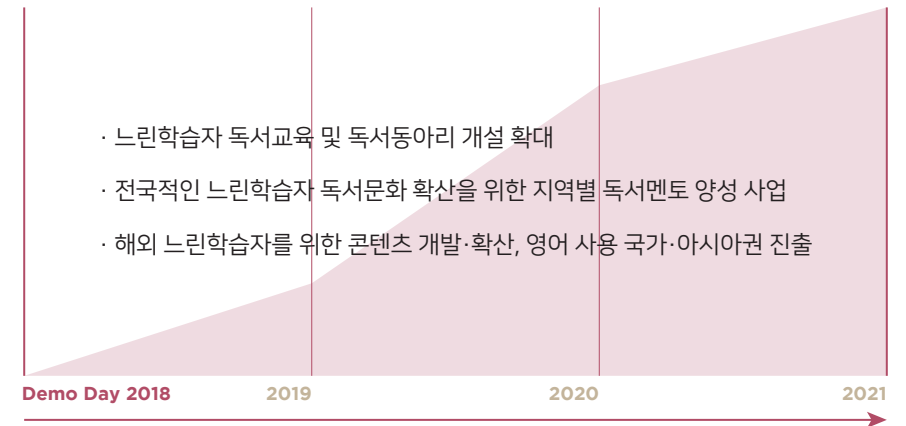
기대 효과

느린학습자의 실질문맹 개선과 정보평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국내 100만 명 느린학습자의 사회·정서적 격차를 해소합니다.

주요 성과

- 느린학습자를 위한 쉬운 글 콘텐츠 제작
문학 13권, 비문학 9권, 교과목 6권, 뉴스기사 3,000건 (사회 972건, 경제 724건, 과학 411건, 문화 486건, 해외 424건)
- 독서교육 횟수 3.1배, 참여학교 10배, 도서배포량 65배, 교육참여자 3.4배, 교육봉사자 4배 증가(16년 대비 17년)
누적 독서교육 1,216회, 참여학교 40곳, 도서배포량 7,700권, 교육참여자 3,260명, 봉사자 400명(17년~18년 10월)
- 전용 도서관 '시끄러운 도서관' 1개 개관, 공공 도서관 3곳에 느린학습자 전용 서가 마련

성장 플랜 (3년)



투자 필요 부분

- 느린학습자 전용 '시끄러운 도서관' 교육 공간 확보·조성
- 쉬운 글 콘텐츠 양적·질적 향상을 위해 협업할 다분야 전문가 확보 (소재 제공, 감수·편집·디자인, 기타 등등)
- 해외 느린학습자를 위한 쉬운 글 콘텐츠 제작·확산 사업

“ 쓰기를 어려워하지도 않고 내용도 풍부해졌어요. 이제는 일곱, 여덟 줄은 쉽게 써요. 어떤 때는 열 줄도 써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독서가 단순히 책을 읽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생각하는 수준이 달라지고 자신의 생각을 정확히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피치마켓에서 책 읽기를 꾸준히 하면서 언어에 대한 친밀감이 높아지다 보니 어쩌면 사회에서 함께 살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하게 되었어요. ”

경계선지적장애 청소년 어머니

아산나눔재단은 2011년 10월
고 아산 정주영 현대 창업자의 서거 10주년을
기념하여 출범한 공익재단입니다.

아산나눔재단은 고(故) 아산 정주영 현대 창업자의 서거
10주기를 기념해 2011년 10월 출범한 공익재단입니다.
아산나눔재단은 우리 사회에 아산의 창조 정신을 계승한
'기업가정신(起業者精神; Entrepreneurship)' 확산을 위해
사회 전반에서 다양한 방식의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산나눔재단은 더 나은 세상으로의 변화를 이끄는
사람과 기관을 양성해 사회발전을 이루고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를 수 있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청년
창업가와 사회혁신가가 도전하고, 성장하고, 나누는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가정신 교육 사업, 청년 창업 지원 사업,
비영리 역량강화 사업 등을 다양하게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info@asan-nanum.org / 02-741-8220

아산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 이를 수 있다” 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산나눔재단은
더 나은 세상으로의 변화를 이끄는
사람과 기관을 양성하여
사회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들은 다음세대가 지닌
무한한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보듬어 줄 것입니다.



비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를 수 있는 세상

미션

세상을 변화시키는 창업가와 사회혁신가가
도전하고 성장하고 나누는 기반을 만듭니다

기업가정신 교육 사업

청소년과 청년들이 기업가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청년 창업 지원 사업

전국의 예비 창업가를 발굴하고
창업가를 위한 교육, 멘토링, 공간 등을 지원합니다

비영리 역량강화 사업

비영리 분야에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사회혁신가를 육성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淡淡한 도전,
아산이 함께합니다

Contact us
partnership@asan-nanum.org



아산나눔재단 뉴스레터 구독 신청
아산나눔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세요!

